

2019 오병이어선교회 / 통권2호

# 풍성한세





## 냅다 뛰기 전에!

글. 지명. 오병이어선교회 초대회장  
WCS(전인공동체학교) 팀장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살후 2:15)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7)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후 3:3)

선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사명으로 한다.

현신을 수반하는 사역자가 선교 목적(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우리 선교회도 국내외 선교가 30년을 훌쩍 넘기고 나니 경륜 있는 선교를 하신 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게 된다.

‘왜, 나의 선교사역에 후임자가 없는가?’

‘왜, 내가 양육했던 제자들이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는데 나는 쫓겨나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 간과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해 돌아보는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에 와서 보니 우리도 선교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역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였으며 모든 사역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일하는 것마다 분주하고, 새로운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렵기까지 하며, 사명자의 생활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으며, 동역자와의 관계도 상처로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어쨌든, 우리는 자신을 성찰함으로 하나님과 동역자, 그리고 사역을 돌아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사역이 우선순위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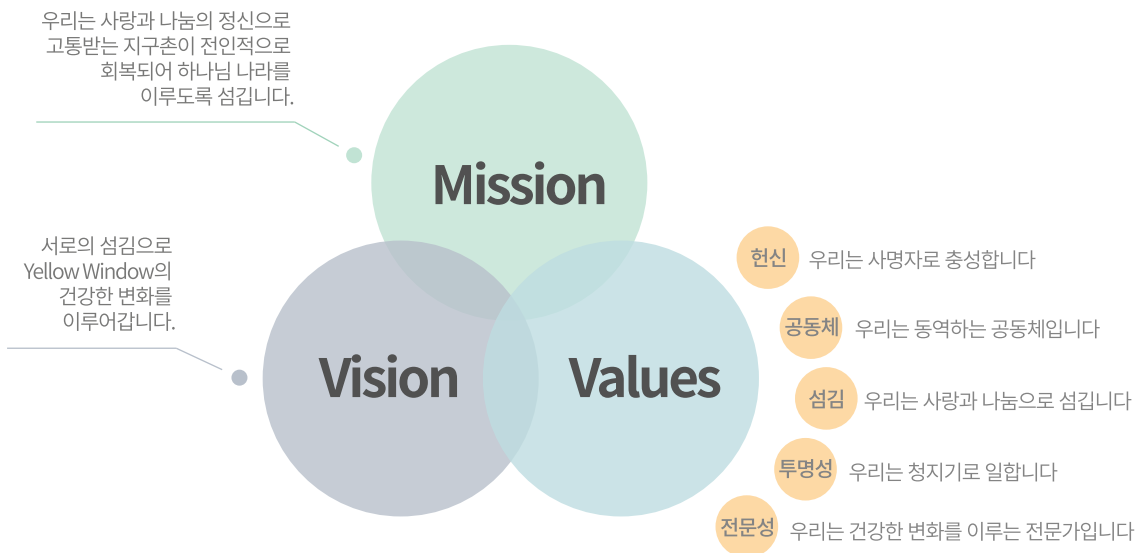
현장에서 냅다 뛰기 전에, 진정 나의 정체성을 찾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창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선교동원, 훈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 Mission Strategy 중점전략

### 복음, 제자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합니다

### 선교사 양성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현장을  
채우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  
하며,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으  
로 열방을 섬기도록 합니다

### 헌신 및 파송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 총체적 선교





© calli furaha(손주희)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  
됩니다.

2019년 통권2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광미란  
발행일 2019년 8월 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서교동442-5)  
수양빌딩 3,4층 (03996)  
02.322.4630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http://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https://www.facebook.com/yellowwindow52)



표지\_박일화 후원자님 재능기부

## Contents

- 03 칼럼 / 지명
- 06 국내현장 이야기 / 제6회 해외선교사컨퍼런스
- 12 선교현장 이야기 / 캄보디아1
- 14 선교현장 이야기 / 캄보디아2
- 16 선교현장 이야기 / 마다가스카르
- 18 Yellow Window 알아가기 / 인도
- 20 Yellow Window 정탐보고 / 인도\_나갈랜드
- 22 오병이어 + People / 김윤실, 박일화
- 24 2019 오병이어 뉴스
- 26 오병이어 비전 2036 / 광미란

### 선교사 파송현황



Yellow Window는 복음의 소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의 악순환을 끊고,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우리 이웃들의 땅입니다

- 모성과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해결할 긴급한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우선중점사업국가**
- 식량안보, 식수위생, 국민근층의 영양문제를 해결할 통합적 중재 사업이 필요한 국가
-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장기적 개발 사업이 필요한 국가

# 오늘 그리고 그날

글. 유수미. 해외선교위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6회 오병이어선교회 해외선교사컨퍼런스가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 시기에 선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부산에서  
‘오늘 그리고 그날 (Today and The day)’이라는 주제로 2019년 1월 28일(월)에서 31일(목)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후원도 소중하고 감사했지만, 준비과정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큰 웃음과 감동의 눈물이 함께 했던 그 현장으로 지금 다시 떠나본다.



## #1. 현장스케치\_첫째날



위쪽부터) 환영선물과 김선미선교사님(킴), 신나는 레크레이션, 라이프로드싱어즈 공연

이른 아침 한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설레는 맘으로 시작된 여정은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열방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모여들어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진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호텔에 도착. 선발대로 가신 간사들과 해외선교위원님들의 수고로 아름답게 세팅된 시걸홀에서 푸짐한 환영선물과 함께 여는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오병이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각자 사역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축복하는 자리를 가졌다.

뒤이어 선교사컨퍼런스 최초로 전문가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레크레이션 시간은 먼길 오는 동안 굳어있던 몸도 풀고 서로의 어색함도 날려 보내는 재미와 의미가 있는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이었고, 강사님과 함께 오신 지인분이 사진 촬영과 함께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사진액자를 선물해 주셔서 뜻밖의 감동을 받기도 했다.

찬양사역팀 라이프로드싱어즈의 공연은 해운대의 야경과 더불어 그동안 고단한 사역에 지치신 선교사님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환영의 자리였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다.

오병이어 2030 비전 동영상 이후 Keynote Speech를 통해 오늘의 감격과 그날에 누릴 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과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선언하였다. 선교사님들의 현장 속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몽골의 윤조이 선교사, 방글라데시의 남은자 선교사, 라오스의 백기라 선교사, 마다가스카르의 장준호 선교사님의 나눔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주은혜 선교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렸다.

## #2. 현장스케치\_둘째날

왼) 김은혜선교사님의 인도로 올려드린 찬양시간  
오) 네팔 인터서브 라이니 선교사님과 함께





## 국내현장 이야기\_제6회 해외선교사컨퍼런스

하루를 여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둘째날 오전, 자신의 젊음을 네팔 어린이교육 전문가 사역으로 헌신하신 인터서브의 라이니 선교사님이 '선교사 영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흥미진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어주셨고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 조샘 선교사님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덕분에 감동 가득한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사전설문조사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영성관리'의 주제를 가지고 선교멘토링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엠브릿지대표 박준범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다. 이어서 미래선교 이슈에 대한 동영상 강의(황성주 박사님의 '선교동원과 자원 개발', 하충엽 목사님의 '통일 그 이후')를 함께 시청하면서 짧은 일정 속에 다양한 주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

순서 사이사이마다 김은혜 선교사님의 인도로 올려드린 찬양의 시간은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 컨퍼런스 내내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사역현장 이야기에서는 잘 나가는 임상영양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열정 가득한 허중은 선교사님의 '대만에서의 TEE 사역이야기와 암투병 간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뒤이어 2018년 사역보고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고, 몽골 김선미 선교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사역현장을 위한 기도회로 뜨겁게 또 하루를 마감했다.

### #3. 현장스케치\_셋째날

소그룹쉐어링







위) 주님께 찬양을,  
이용숙 해외선교위원장님의 강의 '공동체 오늘 그리고 그날',  
해외선교위원회(왼쪽부터 추명희, 유수미, 마진영, 이옥, 김미순 위원과 이용숙위원장),  
17기 WCS 팀 특송



셋째 날 아침은 몽골 김선미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유수진 선교사, 캄보디아 김선미 선교사, 탄자니아 임희진 간사의 순서로 사역지의 현황과 고충,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하는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가 이어졌고, 광미란 대표님이 앞으로의 공동체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오병이어와 위드의 선교전략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한국기독절제회의 김현경 이사님의 '건강한 삶과 절제 운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세대별 소그룹 웨어링을 통해 세대별 고충을 함께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적 화합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공감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이용숙 위원장님의 '공동체 오늘 그리고 그날'이라는 강의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회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 일정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벌써 마친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시간이었으나, 마치 천국의 작은 모형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았던 이 일정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닫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지성 팀장님의 인도로 앞으로의 헌신과 결단을 위한 뜨겁고 간절한 기도회와 더불어 서로를 축복하였다.

#### #4. 현장스케치\_마지막 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마지막 날은 동양 최대 스파에서 사우나와 찜질방을 이용하며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고 멋진 바다 전경에 평평 쏟아지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한식 뷔페에서 부산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이후 태종대 관광일정은 기상 관계로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제7회 해외선교사 컨퍼런스를 기약하며 각자의 부르신 자리로 출발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은 오늘의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실 내일의 소망으로 가득했음이 분명했다.

## # 해외선교위원 후기



### 그 겨울 그 부산

글. 이옥. 해외선교위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던가. 행사는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윽고 해외 선교위원장님의 회개에 대한 축구는 앞선 프로그램처럼 그냥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어 각자가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었다. 관계 가운데 용서는 평안을 주고, 일 속에서 감사는 기쁨을 주고, 회개는 성령 충만을 주는 키워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공동체의 회개는 그 스케일이 다름을 보았다.

전 공동체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화해와 우정의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태산 같던 문제가 평지가 되어 자신감을 얻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이것이 축제 이구나 싶었다. 성령이 운행하시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공동체 가운데 용납 되고 수용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전율을 경험했다.

그때를 글로 정리하며 그야말로 사단이 무서워하는 참회의 기도를 나의 일상 속에서 더욱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는 적용을 하고, 컨퍼런스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훈을 되새겨 보며 따뜻했던 그 겨울 그 부산을 회상해 본다.



###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글. 김미순. 해외선교위원

조금은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행 기차를 탔다. 나에게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한, 내가 갖지 못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난다는 것이 나를 설레게 했다. 몇 년 동안 해외선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병이어 선교사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던 터라 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어느 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정 중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강의를보다도 가슴에 와 닿았고 사역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눈물 흘렸던 시간이 야말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순간들로 남아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멀리서나마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모든 선교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 날까지 파이팅~!



# MK(Missionary Kids) 캠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글. 마진영. 해외선교위원



컨퍼런스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해외선교위원들을 준비 시키시기 위해 2018년 6월 부산수영로교회에서 진행된 NCOWE 대회에 보내셨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과 강연의 내용으로 함께 모여 피드백하며 내용도 공유했지만, 위원들 서로가 오병이어 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같은 부르심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동역자임을 깨닫게 하셨고 오병이어 컨퍼런스의 청사진을 함께 꿈꾸게 하셨다.

특히 나는 MK 관련 영역별 이슈 토의에 참석하면서, MK교육과 케어의 중요성, MK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가치관 갈등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사역지에서의 다양한 문화 경험과 발달된 언어 감각으로 미래의 훌륭한 선교자원인 MK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오병이어 컨퍼런스의 목표와 방향을 세워나갔다. MK 캠프의 목적을 한국인이자 MK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큰 줄기로 잡고 기획하였고, 이렇게 진행된 프로그램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한다.

컨퍼런스 첫날 저녁식사 이후, 아르피나 호텔 자스민 홀에서 시작된 MK Camp는 조별로 모여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개인 이름표를 직접 꾸미고, 그 이름표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

둘째 날은 조별 QT, 오전 예배, 조별 나눔, 하나님께 편지쓰기(미취학MK는 다니엘 기도)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진행된 부산 선교지 탐방을 위해 담당자인 송성아 간사님과 함께 12월 6일에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일신여학교, 부산진교회를 미리 답사하며 선교현장의 역사와 그 은혜의 흔적들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큰 감동을 받았고 이 탐방장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MK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선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먼저 찾아간 일신기독병원은 부산으로 파송된 호주의 맥켄지 선교사의 두 딸이 세운 병원으로 우리 MK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부산진교회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일신여학교를 방문하면서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져 1919년 3월 11일 교사와 학생들이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산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 장소들은 MK들이 사역지로 돌아가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억에 남겨질 장소와 탐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날 오전에는 파이드온 선교회 전문 강사님의 모세오경의 사건의 흐름을 율동과 함께 외우며 발표하는 '신나는 성경탐험'을,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김정현 집사님의 미니 올림픽을 통하여 한 공동체의 MK로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롤링페이퍼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었고, 발표회를 통해 MK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귀여운 율동은 부모님들과 듣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다.

23명의 MK들과 10여명의 담당 교사와 보조 교사가 함께 한 2박 3일간의 MK 캠프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순간까지 세밀하게 사용하시며 장소와 재정, 담당자, 일정, 날씨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MK 교육과 케어를 통해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총체적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열방의 MK와 가정을 품고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 땅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글. 윤정일, 캄보디아 선교사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 없는 캄보디아 소망의 새빛교회 공동체!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교지 교회 현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 제 자신을, 그리고 저희 모두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소망의 새빛교회 다음세대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 찬양소리 울려 퍼지는 토요 성경공부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소망의 새빛교회에서는 2년전부터 주일학교를 나오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쑥킴, 므니로앗, 깐짜나, 찐드림, 마늘, 쑥카엠편과 함께 성경공부가 한창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높은 음에서 뽕싸리?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찬양을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열심히 부르는지 모른답니다.



### 말씀 묵상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프놈펜 학사에서도 청년 대학생 6명(우덤, 분티, 쑥리웅, 찐니웅, 티다, 스라이마오)과 함께 저녁 9시 경건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찬양과 말씀묵상을 통해 그 마음이 기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소서!”



### 즐겁고 신나는 주일학교

매 주일 9시 주일학교 어린이예배가 끝나면 2부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미술활동에 참여합니다. 캄보디아 공립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등의 예체능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 후 크레파스와 색종이, 가위, 풀을 사용해서 색칠공부, 색종이 접기, 만들기 등 미술활동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지난 달에는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씩 성령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 이 땅에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캄보디아는 자체적으로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주변국가로부터 많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공장과 주택단지, 쇼핑몰 등의 시설이 프놈펜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요즘과 같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물도 전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오전, 오후로 번갈아 6시간씩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공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가장 무더운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낮에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의 영적, 육적으로 목마른 현실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때, 캄보디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시기에 고통받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품고 섬기는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건강을 잘 지키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글. 쑤영 찐디. 캄보디아 현지사역자



###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주

저는 2010년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러 소망의 새빛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공부보다 놀러가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실력은 그렇게 늘지 못했습니다. 수업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는데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에 김선미 선교사님이 '일요일에 예배가 있으니 예배드리러 오세요' 라고 매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뜻이 정말 궁금했지만 부끄러워서 그 뜻을 물어보지 못한 채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은 너무 재미있었지만 점점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집안일도 많아서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다시 나오라고 권면하셨고,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에는 예전과 달리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저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졌고 오빠의 대학교 졸업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에게 오병이어선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셨고 왕립프놈펜 대학교에서 크마에 문학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도 힘들고 가정의 재정문제와 이혼 후에도 집에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말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주세요. 재정 문제도 해결해주셔서 매달 돈이 부족하지 않게해주세요. 특히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식구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게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게해주세요.’ 그러나 1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받았던 ‘일대일 제자 양육’에서 배운 ‘기도’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Wait 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는 대학 졸업후 태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그 후 직장을 알선해 주셔서 태국계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의 재정문제와 어렵던 가정의 분란도 조금씩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크마에 문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어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

저는 오병이어선교회의 장학금으로 대학교 진학도 할 수 있었고 취업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34기 WCS(전인공동체학교) 훈련을 통해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제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선교회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행복함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이 공동체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외에 누구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제가 공동체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혼자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판디 사역자 졸업식날 김선미 지부장님과 지부 식구들

## 친애하는 마다가스카르에게

글. 이지영. 위드 전략연구팀 인턴간사(전 마다가스카르 봉사단원)





먼저 건네고 싶은 말은 내 안에 한숨을 빼고 새 숨을 불어 넣어 준 그대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대에게 가기 전에 나는 무거웠고 나는 너무 멀었고 나는 캄캄했고 그래서 나는 웅크렸다. 그런 나에게 그대는 다가와 아무런 말없이 내 곁에 앉았다. 평생 토록 그 무게와 그 거리와 그 어둠에 익숙한 듯이. 그대는 그런 별것도 아닌 걸로 뭘 그리냐고 나를 다그치거나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나는 안다.

내 처음의 교만함과 거만함에 대해 그대에게 용서를 구한다. 또한 내 교만과 거만을 거뜬하게 견뎌내고도 자존심도 상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오만해 지지도 않은 그대에게 또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대를 더럽다고 미개하다고 판단했던 그 순간에도 화를 품은 대답 대신 그대도 이런 재미가 있지 않냐? 고 나를 어깨로 툭 치며 웃어 보이는 그대는 참으로 대단하다. 땀벌에서 애써 농사를 지은 밭이 물에 잠겨 3개월을 쳐다보고만 있는 그대가 안쓰러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까를 찾던 나에게 '괜찮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담담히 전하는 그대의 대답은 아무나 범접하지 못할 심연과도 같은 깊이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대는 견고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강하지만 위험하지 않고, 높지만 우쭐대지 않고, 돌아가지만 여유가 있고, 낮지만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귀한 마음과 눈을 가졌다.

그대는 마치 알바트로스 같다. 평소의 알바트로스는 큰 물갈퀴 때문에 뒤통거리며 걷고, 큰 날개 때문에 날기도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던지는 돌조차 피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잡혀 사라지고 있는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는 그 순간, 바람이 더 거세지는 바로 그 순간 절벽에서 뛰어 내려 공기를 가르고 하늘을 덮는 새.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에 순응 할 줄 아는 새. 바람이 더 거세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새. 모두들 숨죽이고 숨어 있어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때를 알고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비행하는 새. 그래서 그대는 알바트로스를 닮았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폭풍우를 만나는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다. 변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떠넘기고 싶기 때문이다. 숨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대에게 묻는다. 내가 그대의 친구가 되어도 좋으냐고 청해 본다. 나는 진심으로 그대의 친구이고 싶다고. 그리고 그대와 어울리는 썩 괜찮은 이가 되고 싶어진다고.

그대는 대답했다. 우린 벌써 친구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않겠다고 말해줘서 감사하다. 그것으로 나는 되었다. 나는 축하다. 그대가 나를 위해 준비했던 그 미소도 웃음도 손길도.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또한 결코 잊지 않겠노라 그대에게 건넨다.

고마웠다.

그대 마다가스카르여.

-벧, 지영-

(2018년 월드프렌즈NGO봉사단 사업결과보고집\_단원활동에세이에 실린 글)



# 인도 India





|                |                                                                                                                                                                                                                                                                                                                                                                                                    |
|----------------|----------------------------------------------------------------------------------------------------------------------------------------------------------------------------------------------------------------------------------------------------------------------------------------------------------------------------------------------------------------------------------------------------|
| <b>국명</b>      | 인도공화국 Republic of India                                                                                                                                                                                                                                                                                                                                                                            |
| <b>독립</b>      | 1947년 8월 15일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 이슬람권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권은 인도로 독립                                                                                                                                                                                                                                                                                                                                                 |
| <b>수도</b>      | 뉴델리(New Deli)                                                                                                                                                                                                                                                                                                                                                                                      |
| <b>면적</b>      | 3,287,263 sq km (세계 8위, 미국 면적의 1/3 수준)<br>서쪽으로 파키스탄, 북동쪽으로 중국, 네팔, 부탄,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함                                                                                                                                                                                                                                                                                                     |
| <b>인구</b>      | 13억 3,900만명(UN, 2017/ 세계 2위)                                                                                                                                                                                                                                                                                                                                                                       |
| <b>종교</b>      | 힌두교 79.8%, 이슬람교 14.2%, 기독교 2.3%, 시크교 1.7%, 기타 2%<br>(CIA, 2011년 추정)                                                                                                                                                                                                                                                                                                                                |
| <b>기독교박해지수</b> | 10위, 힌두 민족주의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극심한 박해, 차별, 폭력 지속(Open Doors, 2019)                                                                                                                                                                                                                                                                                                                                       |
| <b>언어</b>      | 헌법상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으며, 힌디어(인구의 44% 사용)가 공용어, 영어는 제2공용어지만 정치, 상업적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언어                                                                                                                                                                                                                                                                                                                  |
| <b>경제</b>      | GDP 1인당 기준 6,427\$,<br>빈곤율(하루 1.90\$ 미만) 13% (World bank, 2018)                                                                                                                                                                                                                                                                                                                                    |
| <b>민족</b>      | 인도-아리아족 72%, 드라비다족 25%, 몽고족 및 기타 3%                                                                                                                                                                                                                                                                                                                                                                |
| <b>카스트제도</b>   | 인도인은 태어나면서 특정 카스트에 속하며 이는 가족의 직업과 직결, 카스트는 4개의 주요 계급, 즉 사제인 브라만, 무사인 크샤트리아, 상인인 바이샤와 노예인 수드라로 나뉘며, 수드라아래에 천대받는 불가촉천민(인도 인구의 약 25%에 달함)이 존재함, 카스트에 따른 차별은 헌법상 불법이나 인도에서는 여전히 카스트에 기반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
| <b>보건영양</b>    | -5세 미만 사망률 39.4명/1,000명 출생당(FAOSTAT, 2018)<br>-저영양상태 인구비율 15%(FAOSTAT, 2018)<br>-안전한 식수이용률 94.1%(CIA, 2015)<br>-안전한 화장실 이용률 39.6%(CIA, 2015)<br>-5세 미만 아동의 성장부진(Stunting) 37.9%<br>(UNICEF/WHO/WB, 2019)<br>-저체중(Underweight) 36.3%(UNICEF/WHO/WB, 2019)<br>-소모증(Wasting) 20.8%(UNICEF/WHO/WB, 2019)<br>-심각한 소모증(Severe wasting) 7.7%<br>(UNICEF/WHO/WB, 2019)<br>-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51.4%(WHO, 2015) |

## 기도제목

1. 힌두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종교(힌두교)로 다시 돌아가라는 압박과 힌두 급진주의자들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반개종법(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도록, 인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2. 카스트 제도로 인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인도 하층계급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심각한 영양불량으로 고통당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지원하는 영양개선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 NIS를 통해 바라본 인도 나갈랜드

글. 이해리. 전 오병이어선교회 간사

### “인도 안의 이방인의 땅, 나갈랜드”

세계에서 일곱 번째 넓은 나라로 13억 명의 인구가 사는 인도. 인도의 29개 주 중 하나인 나갈랜드(Nagaland)는 방글라데시를 사이에 두고 인도 본토와 떨어진 북동부에 위치하며 산지가 90%인 고산지대이자 인구 200만 명이 거주하는 인도에서 네 번째로 작은 주(州)이다. 동쪽으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문화적으로는 미얀마와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영국이 인도로 병합시키기 전까지 한 번도 인도 땅인 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곳에 사는 나가 민족은 중국 티베트 언어를 사용하는 티베트 버마계로 인도 본토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 비슷한 생김을 가진 스스로도 인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도 내의 이방인들이다. 더욱이 산지에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이 어렵고 인도로부터 끊임없이 독립을 시도해 왔기에 인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자신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외부 침입자나 적의 머리를 베어 승리의 트로피처럼 간직하는 head-hunting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1871년 복음이 전해지고 1872년 미국 침례교 선교사 Clark 부부에 의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놀랍게 복음화가 되어 지금은 인구의 9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가 주종교인 인도의 몇 개 되지 않은 주로 변화되었다.

나갈랜드에는 총 16개의 소수 부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작은 부족 중 하나인 R족은 나갈랜드주 코히마의 A지역을 중심으로 48개 마을에 거주하며, 침례교총회를 영적 거점으로 하여 신앙 생활을 이어 가고 있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 서남아시아 북쪽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 “10기 NIS”

‘지역사회 식생활 영양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NIS (Nutrition Intervention School)는 Yellow Window 지역의 영양·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영양교육과 사업제안까지 모색하는 위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10기 NIS는 약 5주간(2018. 12.17~2019.1.24) 국내 강의와 지역조사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지역조사는 나갈랜드 주, 코히마(Kohima) A 지역 R부족과 인연을 맺고 계신 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 지역 주민의 식생활의 어려움들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실시하게 되었다. 나갈랜드 디마푸르 공항에 내려 5시간 동안 산길을 달려 도착한 A 지역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R부족의 침례교 총회 게스트 하우스에 10일간 머물며 산속에 위치한 마을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6-24개월 주 양육자 대상)와 신체계측(주 양육자, 6-59개월 영유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68%의 가정이 식품 불안정 상황을 겪고 있었고,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는 비율이 50% 미만이었으며, 영유아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영양불량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영양불량 아동 비율이 30~40%로 나타나 안정적인 식품공급과 개인위생 교육 등의 적절한 영양 중재 활동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양육자의 40%가 고혈압 전 단계에 속했고 젊은 어머니들은 저혈 압 증상을 보여 생애주기 에 따른 적절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조사를 진행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상반된, 그들의 생활적 어려움이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곳은 침례교 총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와 부족 사회로 단결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 전인적인 건강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교육, 보건, 농업, 경제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NIS를 통해 본 나갈랜드 A지역”

###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각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교회를 보면서 예배를 지켜 나가는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이 느껴졌다. 또한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각 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의 활동을 위해, 우리도 방문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든 일정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과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 영적인 샘물과 같은 곳

지역 조사를 도와주셨던 한 선생님께서 “우리 R부족은 어려운 환경 속에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민족이다”라는 고백을 하셨다. 침례교 총회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많은 신학생들이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변국가로 파송되어 또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땅 가운데 영적인 샘물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한다.

## “Pray for R tribe”

그 곳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움직임이 있었다. 아마도 90% 이상의 기독교율을 자랑하는 그 지역 가운데 세상의 빠른 변화들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를 이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각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해 본다.



영유아 신체계측중

[미얀마 단기 특강사역을 마치고]

##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글. 김윤실. 한가람초등학교 영양교사

미얀마 청소년 학생 대상 단기특강 사역에 제안을 받았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사무엘상 15:22) 말씀이 계속 맴돌아 안미진 선생님에게도 권유하여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미얀마로 출국하기 전, 새로 생긴 인천국제공항 기도실에서 목소리 크게 기도로 무장하고 나서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계신 고은경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한국식문화, 한식 조리인 한우장국죽, 김치전, 전통후식인 화전과 약선 음식인 홍삼당귀편육, 무생채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현지 식재료로 한식을 강의하는 데 무리 없게 진행을 도와주신 요리전문가 최용수 단원 등 여러 현지시스템 선교사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지 사역을 마치고 미얀마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도서 3장 12~13절) 말씀을 묵도하게 하셨습니다.

미얀마 학생들의 크고 동그란 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미얀마 단기특강사역중에 김윤실(왼), 안미진(오) 영양교사





## 고난은 바로 나를 둘러싼 만물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길

글, 그림. 박일화 후원자

박일화 후원자님은 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20년간 오병이어선교회에 기도와 재정으로 Yellow Window를 함께 섬겨주신 최고령(93세) 동역자이십니다. 본 글은 후원자님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기 위해 작성하신 수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의 이화여대 기숙사 생활은 낭만이나 즐거움으로 찬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았다. 고난의 격랑 속에서 정신차리기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기숙사 생활 이전부터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해방, 6.25 사변 등 큰 사건들을 당대에 겪으므로 내핍생활,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는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므로 답답하고 멋을 모르는 세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고 가르치고 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고난을 겪으므로 고난을 견디는 힘이 길러진 점,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무너진 것,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기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겨난 것 아닌가 생각하니 인간관계도 조금은 배우게 된 것이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나의 교만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며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까지 회복되게 되는 것이니 고난은 바로 나를 둘러싼 만물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길로 보여진다. 따라서 나는 지난날의 고난이 당시에는 쓰라리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고난으로 인한 긍정적 열매가 나의 인격 속에 조금은 있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있다.

## 국내소식 및 광고

### 제6회 해외선교사컨퍼런스

2019년 1월28일(월)-31일(목)까지 제6회 해외선교사컨퍼런스가 부산 아르피나 호텔에서 선교사, MK,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 선교사 파송

2019년 3월 4일(월),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다가스카르로 나가는 홍승진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 전국기독교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2019년 7월6일(토) am10, 전국기독교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초대회장인신 지명 선교사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터제자로'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크리스찬 식품영양전문인으로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부산경남지부 김학선지부장님(경성대 호텔관광의식경영학부 교수)과 박연아 선생님(고양 무원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33주년 감사예배

2019년 8월22일(목) pm7, 전인교회에서 오병이어선교회 33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33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 WCS(전인공동체학교)

35기 DUO WCS가 지난 2018년 12월17일(월)-2019년1월26일(토)까지 라오스 라마나웃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6기 WCS가 2019년 8월26일(월)-10월25일(금), 9주간 열립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세우는 훈련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북한중보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pm7, 전인교회 2층 교육관에서 북한과 한반도를 위한 북한중보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국제영양활동가

지난 2019년 5월11일(토)-6월8일(토), 토요일 5주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개발국 지역사회의 보건영양활동을 파악하고 현지식품을 이용한 보건영양개선활동을 기획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2019년 9월에도 진행 예정입니다.

### 국제위드봉사단

탄자니아: 7월15일(월)-7월26일(금), 음베야사역개발 지역탐방  
마다가스카르: 7월20일(토)-7월29일(월), 어린이캠프, 교사교육  
라오스: 7월28일(일)-8월10일(토), 라마나웃수양관 보수공사  
캄보디아: 8월12일(월)-8월17일(토), 영양불량캠페인 및 교육

###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영양 전문인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누는 세미나로 2019년 10월26일(토)에 열립니다.

### NIS 식생활영양개선전문가학교

Yellow Window의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기획, 실행,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기NIS가 지난 2018년 12월17일-2019년1월24일까지 인도 나갈랜드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 12월에는 탄자니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기모임

#### IFNee(International Food&Nutrition)

##### 아이뿐이 캠퍼스모임

국제개발, 보건영양, 전문인선교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체험 및 중보기도하는 캠퍼스모임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학기중에 열립니다.

##### 직장부 모임

크리스찬 식품영양관련 직장인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pm7시에 있습니다.

##### 지부 모임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지부에서는 매월 1회 라마나웃 스터디, 세계관스터디, 책나눔 등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소식 및 광고

### 몽골 Mongolia

#### 몽골 학교급식법 제정

2006년부터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와 협정을 맺고 진행했던 '몽골 학교급식 시범사업\_수도빈곤지역형, 지방도시형, 유목민지역형'을 7년간 운영 및 이양하고,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오는 가운데 2019년 5월, 몽골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의 토대가 잘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영유아급식관리 사업

지난 4월 22-23일, '울란바타르시 유치원 교사 및 조리사 대표 직무역량 강화 세미나'가 울란바타르시 교육청 관계자와 국립, 사립 유치원 교사 및 조리사 대표 약 85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교수(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와 백지수 팀장(광주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9월 117번 국립유치원내 영양교육시범사업장이 구축되어 위생급식 관리와 더불어 영유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미얀마 Myanmar

#### 중퇴청소년 대상 식음료분야 직업훈련(F&BVT)사업

2019년 4월 2일 흘랑따야 직업훈련학교에서 식음료 직업 훈련 1기생 55명에 대한 졸업식(자격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F&BVT 사업과 졸업한 학생들이 인턴으로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얀마 식음료분야 기업 대상 설명회가 7월9일 열렸습니다. 많은 협력기업이 발굴 되고, 졸업생들의 취업으로 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 북한 North Korea

#### 북한영양보충식 지원

2019년 10월, 23차로 H지역과 P지역에 북한영양보충식 4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북음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 저마다의 꿈마다

마다가스카르의 교육 격차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나갈 꿈찾기 교육 프로젝트 '저마다의 꿈마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WIS(WITH International School) 교육사업 시작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 실현을 위해 마다가스카르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지난 5월 학교건물을 계약하고 교육부 정식인가를 받기위한 준비가 진행중입니다.

### 캄보디아 Cambodia

#### 밀플러스 맘&키즈

캄풍스프 땅사면 8개 마을 약 550명의 영양불량에 취약한 5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을 공급하고 VHSG(지역사회 내 어머님들로 구성된 보건영양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영양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영양상태개선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까지 총 6개 마을에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식수 및 정수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 합니다.



### 라오스 Laos

#### 라마나웃 훈련센터 보수공사

7월 국제위드봉사단을 통하여 36기 WCS가 시작하기 전, 훈련 센터를 보수공사합니다. 특별히 재능기부로 고성민 장로님 가정과 김인송, 김형기 간사님 가정이 프로젝트 팀으로 섬기십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 마무리 되길 기도합니다.

### 탄자니아 Tanzania

#### 카사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재협약

2019년 3월 28일, 카사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 학교장, 교사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재협약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회복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자립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계획 ‘오병이어\_공동체’

글. 광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오병이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더할수록 영양과 복음의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더불어 점점 선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훈련하고 씨름했던 공동체 사역자들이 바로 ‘오병이어’이다.

함께한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값진 시간들을 쌓아가며 공동체 비전 2036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나아가고 있다.

지난 오병이어 30주년을 맞이하여 고백한 ‘오병이어 2036 비전 프라미스’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오병이어 공동체로 유지되며 더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느낀다. 앞으로 오병이어를 통해 삶 속에서 체험한 공동체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헌신」, 「공동체」, 「섬김」, 「투명성」, 「전문성」의 오병이어 핵심가치를 구현해 가기 위해 공동체 영성의 기반을 든든히 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영성은 연합의 삶을 의미한다. 나에서 출발하여 우리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 부르심의 땅 Yellow Window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오병이어선교회를 비롯해서 (주)수양에프앤지, (사)위드, Yellow Window 영양개선연구원이 있다. 현재 이 기관들은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같은 비전 안에서 복음 사역과 전문인 사역을 역할별로 조화롭게 연합하는 사역 공동체이다. 이 기관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어둠의 제국인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맞서 빛이 되는 역할로 견고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설립 동기가 Yellow Window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연합하는 사역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깃으로 주신 영양과 복음으로 소외된 Yellow Window 지역에 총체적 선교를 통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도록 섬기는 오병이어선교회 사명을 공동체 영성으로 굳게 하길 소망한다.



## 11기 NIS

### Nutrition Intervention School 식생활영양개선전문가학교

Yellow Window의 지역, 영양 및 보건문제를 파악하여 단기영양개선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강의/해외실습이 이어집니다

**일시** 2020. 1-2월중 7주간

**장소** 탄자니아 음베야

**대상** 식품영양 또는 지역개발 관련 전공  
기독교인, 국제영양활동가 이수자

**비용** 340만원(예정)

## WCS

### Wholistic Community School 전인공동체학교

내면세계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나의 부르심 확신

**36기 WCS(일반)** 2019. 8. 26 - 10. 22

- 장소: 라오스 라마나웃수양관  
- 비용: 290만원 \*헌재모집중

**37기 WCS(DUO)** 2020. 4월중

**38기 WCS(일반)** 2020. 12월중



Wholistic Community School  
전인공동체학교

## 오병이어선교회 후원안내

|   |   |   |   |
|---|---|---|---|
| 지 | 금 | 여 | 기 |
| 우 | 리 | 함 | 께 |
| 나 | 누 | 어 | 요 |

### 오병이어선교회 후원

국민은행 479037-01-005606 (사)위드

영성훈련센터와 은퇴 선교사 안식관 건립을 위한

### 오병이어선교회 후원회 후원

하나은행 276-910016-75307 이영남

### 선교사 후원

선교사 개별 후원계좌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322. 4643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